

# 국립공원 무등산 나무 66그루 누가 잘라냈나

### 금곡동 선비바위 일대 무단벌목 소중한 자연경관 훼손 안타까워 소유주, 북부경찰에 수사 의뢰

“누가 나무를 잘라냈을까.” 무등산 국립공원 내 수목 수십 그루를 불법으로 벌목한 흔적이 발견돼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와 북부경찰이 실태 파악에 나섰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누군가가 어떤 목적을 갖고 고의로 나무를 베었다고 보고 있다. 해당 토지 소유주는 국립공원 내 소중한 자연경관이 훼손됐으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23일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와 북부경찰 등에 따르면 무등산사무소 등은 광주시 북구 금곡동 산 25-1번지 ‘선비바위’ 주변 수목 66그루가 무단으로 벌목된 흔적을 발견, ‘자연공원법’·‘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광주북부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무등산사무소는 지난 6월 초 선비바위 주변 수목들이 불법으로 벌목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토지 소유주 A씨에게 알렸다.

지난 8월 말 A씨와 함께 현장조사를 진행한 무등산사무소와 북부경찰은 참나무 25그루, 느티나무 17그루, 기타 활엽수 26그루 등이 허가없이 벌목된 사실을 확인했다. 베어진 나무 중에는 지름이 30~40cm에 이르는 것들도 적지 않았다.

A씨는 “처음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의 연락을 받고 ‘잡목 몇 그루 쳐낸 것인데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가 지난 7월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70그루에 가까운 나무가 베어져 땅바닥에 썩어가는 모습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들이 지난 8월말 수목 66그루가 무단으로 벌목된 광주시 금곡동 선비바위 주변을 조사하고 있다. <독자 제공>

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며 “우선 훼손한 사람을 찾기 위해 선비바위 주변에 현수막을 걸었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관계기관과 협의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북부경찰은 수목 절단면이 매끄러운 점 등으로 미뤄 누군가 전기톱과 같은 기계를 이용해 나무를 베었다고 보고 있다.

북부 관계자는 “누군가 나무를 무단으로 벌목한 뒤, 베 나무를 일정한 간격으로 절단해 땅바닥에 쌓아뒀는데 나무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반대쪽으로 등산로가 개설돼 있는 것과 달리 선비바위 자체는 일반 등산객의 출입이 잦지 않고, 길을 모르면 찾기 힘든 곳으로 이곳 지리를 잘 아는 사람들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부 금곡마을에서 2~3km 떨어진 곳에 있는 선비바위는 높이 30~40m에 달하는 날카롭고 반듯한 대형 바위들이 150m에 걸쳐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형태다. 특히 2008년 이후 새인봉과 함께 압벽등반지로 각광을 받았지만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압벽등반 등이 제한됐다가 이

달 중순 허가구간으로 지정·고시됐다.

광주북부경찰도 현장 조사를 마치고 나무를 무단 벌목한 이들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한 결과 나무를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공간을 활용할 목적으로 베었다고 추정된다”고 말했다.

무등산공원사무소 관계자는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가장 많은 수목들이 훼손된 사례”라며 “자연복원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한빛원전 2호기 미세 구멍 2개... 원인 분석 나서

### 방호벽 역할하는 철판 130여곳 무더기 부식도 확인

영광 한빛원전 2호기 원형 돔(격납용기) 내부 철판에 미세한 구멍이 난 사실이 뒤늦게 발견됐다. 원전 사고시 방호벽 역할도 하는 이 철판에서는 녹이 슬어 두께가 얇아진 지점도 무더기로 확인됐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지난 6월 말 한빛 2호기 계획예방정비(정기 점검) 중 격납건물 내부에 있는 두께 6mm 짜리 철판에서 부식에 의한 지름 1~2mm 크기의 미세한 구멍 2개를 발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철판에서는 녹이 슬어 10% 이상 두께가 감소한 지점이 13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빛원전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제작업체인 현대건설, 한수원 중앙연구원과 함께 정확한 균열 원인을 조사 중이며 부식된 철판을 분리, 정비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한빛원전은 지난 5월 4일부터 제22차 한빛 2호기 계획예방정비를 하던 중 육안검사를 통해 일부 구간 부식과 두께 감소를 확인하고 정밀 점검을 해 높이 68m 부위 일부 철판의 두께 감소와 미세구멍을 확인했다.

구멍과 두께 감소가 발견된 내부철판은 원형 자봉을 만들 당시 거푸집으로 사용됐으며, 1.2m 두께의 콘크리트 외벽과 함께 사고 발생시 방사성 물질의 외부 누출을 막는 역할을 한다.

원전 측은 지난 1983년 2호기 원전 건설 당시 사고에 따른 공사 중단으로 해당 부위가 10개월간 외부에 노출돼 부식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전문기관에서 현재 정확한 원인을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빛원전 관계자는 “균열이 난 철판 바

깁쪽에 두꺼운 콘크리트 외벽이 있어 외부 누출 위험은 없다”며 “최근 원자로 건물 외부 방사선 누설 여부를 판단하는 시험에서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안위 보고 후 정밀조사 등을 진행하며 지난 7월 19일부터 4차례에 걸쳐 민간환경감시센터 등에 상세한 상황을 설명했다”며 “추후 진행 과정도 주민들에게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원자력 전문가는 이와 관련, “철판에 구멍이 날 지경에 이르도록 원전 측이 몰랐다는 것은 그동안의 정기점검이 부실했다는 증거”라며 “한빛 2호기의 경우 가동 30년에 접어들면서 각종 설비와 부품 노후화가 눈에 띄게 진행되는 만큼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점검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화재 사망’ 중선장 구속기소

지난달 홍도 해상에서 발생한 무허가 중국어선 화재 사건의 중국인 선장이 우리 해경의 정선명령을 무시한채 해경단정을 향해 돌진,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광주지검 목표지청은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해경 대원들을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중국선적 180t급 유망어선 소강어04012호 선장 양모(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9시45분께 신안군 홍도 남서쪽 70km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단속에 나선 해경의 정선명령을 어기고 대원 9명이 탄 해경단정을 향해 돌진하는 등 위협하며 도주한 혐의다.

양씨는 해경이 조타실에 섬광폭탄 3발을 던진 후 항해를 멈췄다. 이 과정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로 기관실에 있던 중국인 선원 3명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검찰은 앞서 무허가 조업·정선명령 불응 등에 따라 양 선장에게 최고액인 담보금 2억원을 부과했지만 양씨는 이를 거부, 구속됐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 경찰,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집행 시도 유족·투쟁본부측 수백명 반발에 철수

### 내일까지 영장 집행 시한

경찰이 23일 오전 고(故) 백남기(69) 농민의 시신 부검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유족 측 반대로 하지 못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백남기 투쟁본부 측에 부검영장(입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방침을 통보했다. 이어 오전 10시께 홍안선 종로경찰서장이 형사들을 대동하고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현장에는 투쟁본부 측 수백 명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정재호 의원, 정의당 유소하 의원이 모여 경찰 진입을 입구에서부터 막았다.

투쟁본부 측은 스크림을 짜고 몸에 쇠사슬을 이어 묶은 채 강하게 영장 집행

시도를 막았다. 영안실로 가는 길목에는 장례식장 내부 집기를 쌓아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 투쟁본부 측 반발이 거세자 경찰은 일단 진입을 중단했고, 현장에 있던 야당 의원들이 양측 간 협의를 위해 중재에 나섰다.

경찰은 내부 논의를 거쳐 “유족이 직접 만나 부검 반대 의사를 밝히면 오늘은 영장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 유족 측에 전달했다.

유족은 부검에 반대하며, 경찰과 접촉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경찰은 유족 뜻을 받아들여 이날은 영장 집행을 중단하고 철수했다. 이날은 백씨가 사망한 지 29일째이며, 경찰이 9월 28일 발부반은 부검영장 집행 시한(10월 25일) 이를 전이다. /연합뉴스

### ‘48억원 불법 대출’ 담양 메타프로방스

## 사업자·금융기관 임직원 2~4년형 선고

48억원대 담양 메타프로방스 불법 대출 사건과 관련, 사업자와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메타프로방스 조성 사업 실질대표 김모(51)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 등에 불법 대출을 해준 전남지역 모 농협 전 직원 주모(38)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벌금 1억원·추징금 5000만원을, 전 상무 송모(52)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벌금 5000만원·추징금 2480만원을 선고했다. 또 브로커 역할을 한 박모(51)씨는 징역 2년2개월을, 또 다른 박모(40)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7월 메타프로방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48억원을 불법적 방법으로 대출해주는가 하면 그 대가로 5000만원을 주고 받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동일한 대출한도 규정을 피하고자 제3자 명의로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일으키고,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을 부풀려 각 명의자주들이 해당 토지를 매입해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12억여원에 사들인 토지를, 비슷한 시기에 감정평가법원에 의뢰해 373억여원의 감정평가를 받아 30배이상 부풀렸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동일한 대출한도 제한, 담보물의 가치 평가 방법 등 대출에 관련된 규정을 위반해 부실대출을 해주고 대출을 받은 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금융기관 임직원이 금품을 수수한 부분은 불가매수성 및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검은 담양 메타프로방스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 담양군청 일부 사무실, 공무원의 주거지·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

### “권리금 왜 안줘?”...찾김에 상가 CCTV·입간판 망가뜨려




○~40대 여성이 상가 입대와 관련해 갈등을 겪다가 분쟁의 대상이 된 상가 CCTV와 입간판을 망가뜨린 혐의로 경찰서행.

○23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A(여·45)씨는 지난달 14일 새벽 5시50분께 광주 남구 B(55)씨가 세들어 영업을 중인 상가 건물 앞에 설치된 CCTV 카메라에 유리테이프를 붙이고 각도를 틀어버린 다음 입간판 양쪽에 유성펜으로

낙서를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

○상가 내부 CCTV에 범행 장면이 녹화되면서 담미를 잡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건물을 내줄 당시 권리금 3000만원을 받기로 약속했는데 차일 피일 지급을 미루자 찾김에 일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경찰은 “받아야 할 금전이 있다고 해도 남의 물건을 망가뜨린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고 설명.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경매 추천물건

- ★ [LPG충전소] 화순읍 대리 대로면 터널식세차시설 사무실포함 토지 3,228㎡ 건물 355㎡ 감평가 12억7천4백 ▶ 최저가 8억9천3백
- ★ [공장] 서구 동천동 상무자동차전문학원인근 공장일지지역 토지 1,226㎡ 건물 322.35㎡ 감평가 12억1천7백 ▶ 최저가 8억5천2백
- ★ [공장] 화순군 이양면 품평리 농공단지내 12m도로접 토지 6,600㎡ 건물 2,579㎡ 감평가 27억5천3백 ▶ 최저가 12억3천3백
- ★ [공장] 담양읍 삼관리 토지 9,902㎡ 건물 2,921㎡ 예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육가공공장 감평가 44억5천1백 ▶ 최저가 24억9천3백
- ★ [공장]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토지 9,178㎡ 건물 5,842㎡ 장성백이사거리 인근 공장지대 감평가 36억5천5백 ▶ 최저가 25억5천9백
- ★ [공장]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토지 5,977㎡ 건물 2,122㎡ 동화사거리부근 공장지대 감평가 13억3천6백 ▶ 최저가 7억4천8백
- ★ [공장]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토지 9,917㎡ 건물 3,989㎡ 대마일반산업단지내 감평가 35억2천7백 ▶ 최저가 19억7천5백

투자 추천 물건

- ★ [공장, 충전소] 광양시 진월면 진월C인근 4차선대로변 토지 12,914㎡ 공장 1,922㎡ LPG충전소 352㎡ 매매 37억5천
- ★ [공장] 전북 익산시 팔봉동 익산제2산업단지내 토지 6,627㎡ 건물 4,226㎡ 매매 19억
- ★ [토지] 북구 삼각동 31사정문인근 전 1,326㎡ 1종일반주거지역 주위 식당성업중 투자적합
- ★ [토지]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인근 바다, 한라산조망 펜션, 빌라부지적합 4,000㎡ 주택28세대가능 상가 28억선 교환
- ★ [토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 대지 15,668㎡ 건물 900㎡ 미래가치 우수 매매가 상당후 결정
- ★ [무인텔] 북구 유동 대지 1,010㎡ 건물 1,610㎡ 객실 20개 월 4천만원 이상 수익 위치좋은 매매 20억

수익형 추천

- ★ 광주 서구 풍암동 상업지구 대지 510㎡ 건물 3,245㎡ 지상9층 병원빌딩 용 30억 보증금 2억5천 월2천8백만원 매매 50억 (요양병원 허가 취득)
- ★ 광주 서구 풍암동 동부센터리빌부근 코너 대지 298.9㎡ 건물 175.9㎡ 4층건물(용 6억포함) 보증금 7천 월 4백6십 매매 13억5천
- ★ 광주 서구 매월동 자동차매대단지 토지 5,359㎡ 건물 595.4㎡ 2층공장 매매 평당 2백5십
- ★ 광주 북구 풍암동 6층건물 1층 마트 2~3층 목욕탕 4~6층 원룸 26개, 목욕탕 직영중 보증금 1억1천5백 월 9백7십 매매 18억
- ★ 광주 남구 백운동 왕복5차선도로 버스승강장부근 5층건물 대지 527㎡ 건물 1,221㎡ 보증금 2억 월 1천만 매매 18억
- ★ 광주 수완동 경찰지구대 인근 아파트상권 4층상가 준주거지역 대지 475㎡ 건물 999㎡ 보증금 1억 월 6백5십 매매 17억

병원, 공장 매매 및 임대 구함 / 광주 근교 토지 급 구함 / 공인중개사 강천구 062-714-2251